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7월 1일(주일) 제1203호



그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선물하러 온누리교회가 아웃리치를 간다. 사진은 네팔의 아이들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열방 안에’

해외 182개 팀 3,399명, 국내 167개 팀 5,233명 참가
AIDS 보균자 대상 캠프, 무슬림 관계사역 등 실시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열방 안에’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82개 팀, 3,399명, 국내 167개 팀, 5,233명이 참가한다.

성인공동체 아웃리치에는 해외 103개 팀

2,345명, 국내 65개 팀 2,624명(6월 27일 기준)이 참가한다. 대학청년부 아웃리치는 ‘Shout’ (시편 100:1)를 주제로 진행된다. 해외 52개 팀 769명, 국내 84개 팀 2,133명이 산 넘고 바다 건너 땅 끝으로 간다. 차세대사역본부 아웃리치는 ‘바울, Jump to the world’를 주제로 진

행된다. 해외 27개 팀 285명, 국내 18개 팀 476명이 참가한다.

올해 해외 여름 아웃리치는 남아시아가 94팀으로 가장 많고, 동아시아 51팀, 유라시아 10팀, 아프리카 7팀, 아메리카, 중동 각 6팀, 중앙아시아 5팀, 오세아니아 3팀 순이다. 국내 아웃리치는 강원도 40팀, 서울·경기도 39팀, 전라도 29팀, 경상도 27팀, 충청도 25팀, 도서지역(제주도, 울릉도) 12팀 순이다.

아웃리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사역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전도, 여름캠프, 마을 전도와 잔치, 어른신 섬김 사역, 예배 등을 해외 아웃리치에서는 어린이사역, 시설보수, 선교사 위로, 전도사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빙고 차세대 파워웨이브는 AIDS 보균자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요셉공동체는 무슬림 관계사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영선, 이소정, 권찬승 기자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본지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 캠퍼스, 사역팀의 국내외 아웃리치 간증,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생생한 사진, 후기를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196

onnuriweekly@gmail.com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한 불편함’

7월 15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오는 7월 15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만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촌역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양재역에서 양재 온누리교회,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이날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증을 발부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이 대상이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에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면서 “아름다운 캠페인의 의미가 되새길 수도 있는 만큼 교회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오늘은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

오늘(1일)은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5주년이다. 오늘 수원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는 교회 창립감사예배로 드린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2003년 국내 두 번째 세워진 캠퍼스다. 새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음세대를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젊고 역동적인 교회이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성인 2천여 명, 차세대 850여 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신기섭 목사(수원 온누리교회 담임)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앞으로도 새가족들을 잘 섬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포공동체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김포공동체 최현석 권사(83세)의 공동체 사랑이 특별하다. 김포공동체 성도들도 최 권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뜻한지 모른다. 최현석 권사와 김포공동체의 만남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최현석 권사는 6년 넘게 남편 유기형 집사를 간호하고 있다. 최 권사의 남편은 뇌손상 후유증으로 반신불수에 말도 못하는 상태다. 최 권사가 고되고, 기약 없는 긴 간병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김포공동체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보살핌 덕분이다.

“이 늙은이가 대체 뭐라고, 이리도 잘 섬겨주시는지...”

최 권사가 쏟아낸 눈물에는 김포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 미안함이 묻어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

최현석 권사와 김포공동체 성도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 최현석 권사와 유혜정 집사(왼쪽), 김포공동체(오른쪽).



이 챙기고 살피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당번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최 권사를 어머니처럼 여기고, 진짜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주일 1부 예배를 드리는 저를 위해 김포공동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바뀌며 저를 태워주고 있어요. 제가 우울해하면 드라이브도 시켜준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는데 김포공동체 성도들의 지극정성은 유효기간이 없다. 벌써 6년 동안 섬김을 이어오고 있다.

“얼마 전에 남편 병원에 갔다가 지인들을 만나고 집에 늦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집에 와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거든요. 제가 제시간에 집에 들어오지 않자 김포공동체 성도들이 걱정이 된 나머지 전화를 하고, 저를 찾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김포공동체 이흥두 집사가 들렀는데 최 권사가 집에도 없고, 병원에서도 집으로 갔다고 하니가 찾아다니는 것이다. 이웃집에 물어봐도 최 권사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니가 김포공동체가 발각 뒤집혔다. 김포공동체 성도들이 최 권사를 직접 찾아 나서기까지 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날 일을 생각하면 최 권사는 김포공동체 성도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어찌나 감사하고 미안했는지 몰라요. 김포공동체 성도들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퇴원해서 집에 오게 되면 김포공동체 성도들을 모시고 잔치를 할 거라고 선언했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고마운 분들이예요.”

최 권사에게 닥친 시련이 역설적으로 김포공동체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연출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최현석 권사와 김포공동체의 사랑 이야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동안 큰 사랑을 주신 김포공동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포공동체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동체(共同體)’. 생활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이라는 뜻이다. 여기, 생활운명을 넘어 가족보다 더 큰 사랑과 정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 있다. 최현석 권사와 김포공동체 성도들이다. 최 권사는 김포공동체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부족하다고 했다.

“김포공동체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는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수줍은 미소와 소녀 같은 목소리를 가진 최현석 권사가 김포공동체 성도들 이야기만 나오면 개신장군처럼 씩씩해진다. 인터뷰를 하는 내내 김포공동체 성도들 이야기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최 권사는 입에서 꽃향기가 나도록 김포공동체 성도들을 칭찬하는 걸까?

구원의 단비 같은 존재들

최현석 권사와 남편 유기형 집사는 2000년 온누리교회에 왔다. 최 권사는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순전히 남편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교회를 옮겼다. 당시 교회에 다니지 않던 남편이 한사코 온누리교회에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딸이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활동하면서 사위를 만났어요. 결혼예배도 온누리교회에

서 드렸고요. 남편이 딸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다녀오더니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에 푹 빠져 버렸어요. 건강이 안 좋은데도 선교에 목숨 건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온누리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남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 최 권사는 교회를 옮기고 싶지 않았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온누리교회가 낯설었기 때문이다. 수줍어하고, 사교성 없는 최 권사가 새로운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울증이 올 정도였다. 사람들이 봄비는 교회에서 최 권사는 고독감을 느꼈다. 너무 외로웠고 신앙생활도 무료해졌다. 그런 그녀에게 구원의 단비 같은 존재들이 나타났다. 바로 김포공동체 성도들이다.

“교회에 정을 붙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김포공동체 성도들과 순예배를 드리면서 적응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치부와 아픔을 솔직하게 꺼내놓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어요. 김포공동체를 만나지 않았다면 온누리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공동체 또 없습니다”

최현석 권사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쳤다.

2012년 남편 유기형 집사가 쓰러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이었다. 대수술을 다섯 번이나 받으면서 뇌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았다. 거동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의식도 불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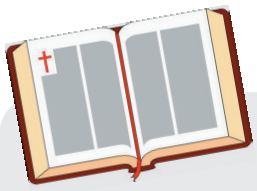
“남편이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는데 동공에 초점이 없고, 몸도 가눌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그때부터 기약 없는 긴 간병이 시작됐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는데 최 권사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김포공동체 성도들의 위로와 기도였다.

“남편의 입원 소식을 순에만 알렸는데 공동체 전체에 소식이 전달됐나 봐요. 김포공동체의 모든 모임에서 저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어요.”

김포공동체의 사랑 나눔은 중보기도로만 끝나지 않았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병원을 찾아와 최 권사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포공동체 성도들이 한 주도 빠짐없이 병문안을 오니까 병원 사람들이 “도대체 환자분이 뭐하시는 분 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냐”고 물었을 정도였다.

김포공동체 성도들은 연로한데다 간병까지 하느라 힘든 최 권사를 위해 픽업서비스도 하고 있다. 최 권사가 간병하러 병원에 갈 때, 주일에 교회 오갈 때, 순예배에 참석할 때, 심지어 개인적인 일을 볼 때도 김포공동체 성도들



주일강단



신기섭 목사

하만의 유다 사람 학살에 대한 아하수어로 왕의 칙령이 전파되면서 수산 성을 비롯해 페르시아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문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궁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던 유다 사람들 또한 금식하고 울며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썼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통곡하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고 유대인들의 운명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고 애통했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의 전통적인 회회와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줄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입니다. 여러분, 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민족적 위기가 다가오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있던 왕비 에스더는 당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개가 왕의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녀들과 내시들이 알려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심히 괴로워하며 옷을 보내 모르드개로 하여금 베옷을 벗고 자신이 보낸 옷으로 갈아입게 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개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의 믿음과 에스더의 도전

“모르드개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 낚이 말해 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산 성에 공포된 학살을 명령한 그 칙령의 사본도 그에게 넘겨주면서 에스더에게 보여 주고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께 가서 자비를 구하고 민족을 위해 간청해 달라는 말도 전해 달라

고 부탁했습니다”(7-8절).

모르드개가 일어난 일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아하수어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하만의 행위를 알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도록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일이 유다 사람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자신과 동족의 목숨을 구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릴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10-11절).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국법에는 왕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에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이 거하는 안 뜰에 들어오면 경호원들에 의해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릴 경우에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왕비라 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 벌써 30일이 지났으며 지금 당장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네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13-14절).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극심한 불안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드개는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모르드개의 말이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설령 에스더가 이 위기상황에서 주도권을 쥐고 위험을 피할 길을 마련하는데 실패한다 해도 희망이 전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데 실패하시는 법이 없고,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시는 일도 없습니다. 백성들

이 선택거나 그분을 신실히 따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위기를 결코 보고만 계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충고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을 오늘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받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적 책임과 의무에 쫓겨서 맘 흘리며 수고하는 나날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이요 부르심이 아닙니다. 보다 근원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만일 에스더가 침묵한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유대인을 위한 안녕과 구원이 다른 데서 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에스더의 개입이나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도전을 주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향한 인생의 목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14절 b)는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꽃혔습니다. 에스더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승진하는 것이, 공부한 것이, 물질을 얻은 것이, 시간 여유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직분을 받은 것이 분명 이때를 위협입니까? “내게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 것이 이때 아니면 이후에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뜻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왕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결단했습니다.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신앙과 인격이 유다 민족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고, 에스더를 깨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도들을 깨우고, 자녀들을 깨우며, 다음세대들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16절).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만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결단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개에게 금식을 행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은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도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모르드개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신앙이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모습에서 위기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우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개나 에스더 같이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드개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개의 믿음의 결단을 보셨고, 그로 인한 위기를 아셨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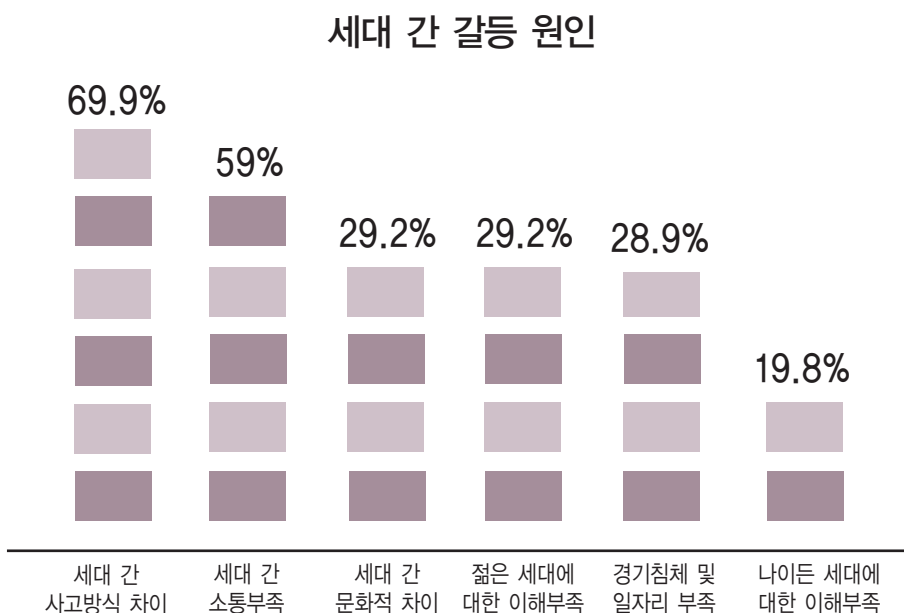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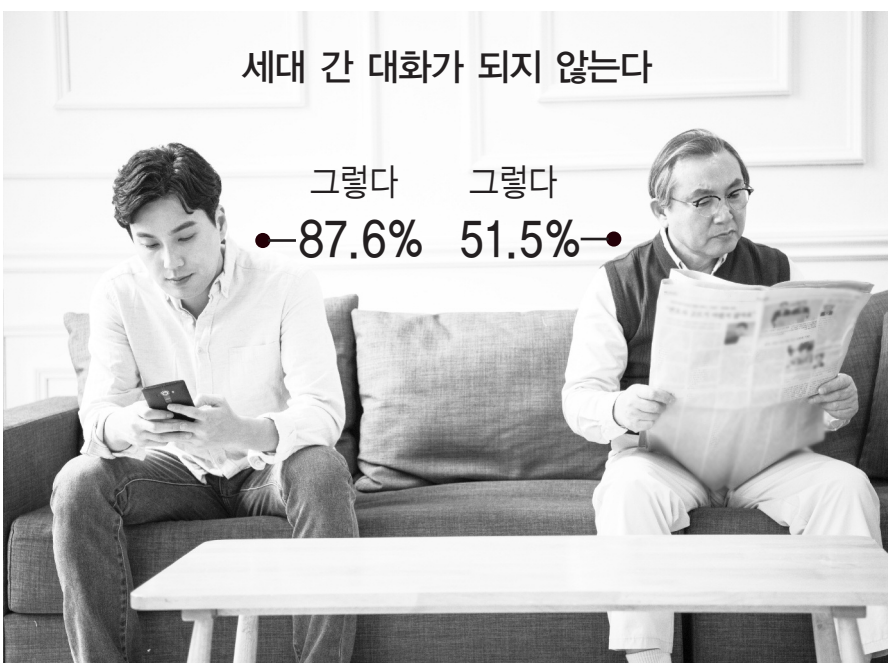
기획 1. 세대 간 갈등

대립하는 사회, 통합시키는 교회

산업화세대, 386세대, 정보화세대 간 불통(不通) 교회는 세대가 만나는 장(場) 만들고, 이해와 존중 가르쳐야

우리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 특정 계층만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서 더욱 심각하다. 세대, 남녀, 노사, 이념 등으로 나뉘어 소모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조건은 ‘화합’과 ‘통합’이다. 대립하고, 갈등하는 사회를 화합시키고, 통합시키는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 모든 세대, 인종, 지역, 문화, 이념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IV)-사회문제와 사회통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갈등이 ‘매우 심하다(8.5%)’, ‘대체로 심하다(71.8%)’고 인식하고 있다. ‘별로 심하지 않다(17.5%)’, ‘전혀 심하지 않다(0.8%)’고 인식하는 비율은 18.3%에 불과하다.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85.19%)’,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81.9%)’,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81.68%)’,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79.57%)’, ‘고령자와 젊은이들 간의 갈등(58.09%)’ 순이었다. 역사적으로 정치, 노사,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시대를 살지만 전혀 다른 세상 추구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
세대 간 갈등을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표현이다. 분명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세상과 지금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모양이 다르다. 그렇다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두 세대

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다. 기성세대들과 청년세대들이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할 뿐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다보니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됐다.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수록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세대 간 갈등이 빚어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 굶아터진 세대 간 갈등 문제를 먼저 토해낸 쪽은 기성세대들이다. 특히 기성세대 중에서도 노인세대와 청년세대의 갈등이 심각하다. 아무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미덕으로 여겨지던 존경과 배려조차 없어졌다.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누구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청년세대들이 고마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요즘 광장에 나가보면 “우리는 25시간 일하며 대한민국을 성장시켰는데 젊은이들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며 분노를 터트리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노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청년세대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인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견딜 수 없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인들에게 돌아오는 반응이라곤 “노망났다”, “나

이는 벼슬이 아니다”는 조롱밖에 없어 무척 안타깝다.

사실 세대 간 갈등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도 “요즘 아이들은 정말 버릇이 없다. 세상 말세다”라는 문장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세대 간 갈등을 단순한 생각의 차이로 넘기기에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염려된다. 사소한 일에도 노인세대들이 청년세대에게 불같이 분노를 퍼붓고, 청년세대들은 노인세대를 조롱하거나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표현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대 간 갈등이 이념갈등 넘어선다

우리 사회 세대 간 갈등이 이념갈등을 넘어설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19대 대선(출구조사)에서 30대 유권자 56.9%가 당시 야당 후보를 선택했고, 70대 이상 유권자 50.9%는 여당 후보를 선택했고, 20대 47.6%는 야당을, 60대 45.8%는 여당을 찍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늘 존재했지만 이처럼 세대가 극명하게 갈라진 적은 없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정치의식 차이는 유독 우리나라에

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2015년말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18~29세가 29%,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65세 이상은 36%였다. 두 세대 간 차이가 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자녀세대와 부모세대는 아예 정치와 관련된 대화 자체를 꺼린다. 말해봐야 싸움만 나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들이 아예 소통하지 않으려 하고, 해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처럼 두 세대가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노인세대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는 우리나라 노인이 46.2%에 불과했다. 대다수 노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거나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고립된 노인세대들이 늘어갈수록 안타까운 사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무연고자(고독사) 사망자가 835명이나 된다.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됐다.

불통은 또 다른 불통을 낳는다

세대 간 갈등의 주범은 불통(不通)이다. 입법 국정전문지 <the leader>에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을 조사(중복응답)했는데 ‘세대 간 사고 방식 차이’ (69.9%), ‘세대 간 소통 부족’ (59%), ‘세대 간 문화적 경험 차이’ (29.2%),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 (29.2%), 경기 침체 및 일자리 부족(28.9%),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해 부족(19.8%)을 꼽았다.

불통은 또 다른 불통을 낳는다. 세대 간 불통과 단절은 대한민국 전체를 병들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 세대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솔루션은 세대가 만나는 ‘공간’과 서로 다른 세대를 배우는 ‘교육’이다.

세대는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화세대, 386세대, 정보화세대가 그것이다.

산업화세대는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들이 활동했던 시절이다. 그 세대의 애환과 아픔을 그린 영화 ‘국제시장’의 제목을 따서 ‘국제시장세대’라고 부른다. 386세대는 민주화세대로 표현된다. 386세대들이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정착에 힘썼던 주역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50대 중후반들을 가리킨다. 정보화세대는 지금 20~30대를 말하는데 청년세대들의 고민을 그린 웹툰과 드라마 제목을 따서 ‘미생세대’라고 부른다.

눈부신 경제성장 이룩한 나라의 영웅 ‘산업화세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하게 성장했다. 산업화세대들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관통하며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우리는 25시간 일했다”는 노인세대들의 외침처럼 그들은 나라와 처자식과 부모를 위해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견뎌냈다. 그들에게도 청춘이 있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단 한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개인을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산업화세대들에게 헌신과 희생은 너무나 당연했다.

온갖 고생만 하던 그 세대는 기성세대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첫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은 부모와 처자식 부양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첫 세대의 주인공이 됐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샌드위치 세대’라고 한다.

산업화세대들은 유난히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겪었다. 6.25 한국전쟁, 4.19 민주화 항쟁, 5.16 군사쿠데타 등 국가적 사건을 삶의 한복판에서 바라봐야 했다. 또한 철저한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면 치를 떤다. 주로 진보를 외치는 젊은이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산업화세대들은 우리나라의 영웅이 틀림없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 가난하던 시절 “쌀밥 한번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던 눈물 젖은 꿈을 실현시켜준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불의에 저항할 줄 알고, 순수와 열정 가득했던 ‘386세대’

386세대는 산업화세대와 정보화 세대 사이에 끼어 있는 세대다. 386세대는 ‘1990년대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신 사람들’을 가리킨다.

산업화세대가 눈부신 경제성장은 이룩했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었다. 바로 독재타도와 민주화이다. 386세대는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실현시킨 또 다른 영웅들이다. 386세대들의 치열한 투쟁 덕분에 우리나라에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사회가 다수의 의견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화가 정착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말리는 투쟁과정에서 386세대는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으로 여기게 됐다.

386세대는 정보화세대와 마찰이 가장 많은 세대이기도 하다. 정보화세대들은 386세대들을 가리켜 ‘기득권세대’라고 지칭한다. 끈대, 개저씨(개념 없는 아저씨의 준말)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386세대들이 자주 쓰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요즘 어린 것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말이지” 등의 대화법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화세대들은 386세대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받은 세대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386세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편견이다. 386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 지금보다는 쉬웠을지 몰라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대학 문 앞에도 가보지 못했다. 60년대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20~30%에 불과했다. 어렵게 대학에 입학해도 낭만이라고는 없었다. 민주화운동 하느라 개인의 성공을 위해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느라 학사경고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5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단 12명만 졸업하기도 했다.

386세대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세대가 아니다. 386세대들은 불의에 저항할 줄 알고, 순수와 열정이 가득했던 멋진 이들이다.

자의식, 인권감수성 짙은 ‘정보화세대’ 그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

정보화세대는 지금 20~30대를 가리킨다. 그들을 ‘미생세대’라고 부르는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웹툰과 드라마 ‘미생’이 전 국민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름 붙게 되었다. 미생이 청년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그려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들이 미생세대를 가리켜 ‘자기만 아는 철부지’라고 하는데 이 또한 틀린 말이다. 미생세대는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실업 사태’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생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산업화세대나 386세대처럼 밥을 굶거나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만큼 사회적 사건이 없는 것은 맞지만 미생세대 모두가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 어떤 세대보다 내일이 밝지 않아서 불안에 떨고 있는 세대임이 틀림없다. 미생세대만큼 기성세대들로부터 충고를 많이 듣고 사는 세대도 없다.

기성세대들의 눈에는 미생세대들이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생세대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생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비전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가라”는 기성세대의 조언이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비전 있는 중소기업은 신화(神話) 속에 나오는 존재를 찾는 것보다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그만한 월급으로는 한 몸 건사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초년생(26~30세)의 절반이 3천만 원의 빚을 안고 있었다. 사회초년생 평균 월급이 195만원인데 그들이 빚을 갚고 저축하는 금액이 평균 26만원에 불과했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정보화세대는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할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위주의, 수직적 위계,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란 이전 세대와 달리 정보화세대는 탈권위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학교에서도 체벌이나 폭언, 폭력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 높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의식, 인권감수성, 개인주의적 성향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짙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정보화세대는 비합리적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일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밥 먹듯이 야근하고 휴일도 없는 직장이라면 가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자신을 희생하면 서까지 견디지 않으려 한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게 편안하고, 낯선 환경이나 사람과 관계를 회피하는 것도 정보화세대의 특징이다.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정보화세대의 행동과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연약하지 않다. 그 어떤 세대보다 잠재력이 있고, 능력도 뛰어나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다.

세대 간 갈등 벗어나는 지름길 안내하기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 모든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주는 공동체는 지구상에서 교회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를 화합시키고 통합시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대가 만나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먼저 세대가 만나서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야 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일단 만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극도로 대립하던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한다. 교회만큼 다양한 세대가 한꺼번에 모이는 곳도 없고, 교회만큼 대화와 자유로운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교회가 세대 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세대 간 갈등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교회가 세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는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온누리교회 간판 양육 프로그램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이용해서 세대 간 갈등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성인공동체가 대학청년부를 양육하면서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면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노하우도 전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대가 화합되고 통합될 수 있다. 교회가 노력해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안내해야 한다.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통일은 일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나공동체 만들고 홀연히 떠난 ‘조요셉 목사’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여섯 번째 주인공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는 조요셉 목사(물댄동산교회)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탈북자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요셉 목사.

조요셉 목사는 탈북민들과 함께 작은 통일을 이뤄가고 있다. 조 목사가 섬기고 있는 물댄동산교회는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교회이다. 성도 70%가 청년인데 탈북민 청년들과 남한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 하고 있다. 남북한 청년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른다. 작은 천국의 모습 같다.

“통일은 제도의 통일, 영토의 통일, 사람의 통일로 나눌 수 있어요. 저와 우리 교회는 사람의 통일을 이룬 거예요.”

조요셉 목사는 1995년부터 탈북민들을 섬겼다. 그때부터 탈북민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일을 한시도 쉬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탈북민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공부하고 또 했다. 탈북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조요셉 목사가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헌신한 원동력이었다. 조 목사는 온누리교회 하나공동체를 창립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조요셉 목사와 하나공동체

조요셉 목사는 ‘사회주의’ 분야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북한전문가다. 그와 탈북민들과의 인연은 1995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300만 명 이상이 굶어죽고,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했다.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급증한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저는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에서 탈북자 정책과 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국내에는 탈북민이 700명쯤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낯설게 느끼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알고 지내던 군포 경찰서 경찰관 한 분이 전화해 관내 탈북자들이 있는데 관리가 너무 어렵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과연 탈북민들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찾아갔어요.”

실제로 만난 탈북민들은 그가 배우고 생각했던 북한사람들이랑 완전히 달랐다. 남한주민들과 똑같았다. 그날 이후 조 목사의 삶에는 ‘탈북자’라는 단어가 늘 붙어다녔다.

1995년에는 한국 교회에 ‘탈북민사역’이라는 개념과 용어 자체가 없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을 경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탈북자들과 성도들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했다.

온누리교회에는 2000년부터 출석했다. 우연

히 참석하게 된 식사자리가 계기가 되어서 탈북민을 위한 예배공동체 ‘하나공동체’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오대원 목사님의 엘렌 사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어요. 두 분이 친분이 있으셨는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주선에 교수님과 북한외교관 출신 탈북자동지회 홍순경 회장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날 이후 조요셉 목사는 주선에 교수와 교제하면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탈북민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03년 하나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탈북민들이 구름 떴처럼 몰려왔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 탈북민들을 섬겼다. 하나공동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조 목사는 홀연히 온누리교회를 떠났다.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탈북민들만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탈북민 양육에 정성을 쏟았다. 당시에는 탈북민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턱없이 부족했고, 재정사정도 열악했다. 탈북민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의 역량 보충도 필요했었다.

뜻하지 않았던 목회자의 길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제하는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당시 저는 하나님의 강권으로 햇빛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탈북민을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강의 다니고, 공부까지 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했지만 목회자가 될 생각은 없었다. 2006년 한 신학대 교수가 탈북민 목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를 도왔다. 그런데 동역했던 교수가 2007년 5월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어쩔 수 없이 탈북민 청년들에게 전에 출석하던 교회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박사님이 신학생이면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사역하면 되지 왜 우리보고 돌아가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제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의 길

을 걷게 되었어요.”

탈북민 섬기는 노하우

물댄동산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 청년들이 하나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성장했다. 물댄동산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청년들인데 남북한 청년 비율이 거의 반반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서 남북한 청년들이 교제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 탈북민사역에 대한 저변이 약하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들이 북한사역의 필요성을 모르고,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탈북민 청년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친구들을 데려와서 섬기기도 하고요.”

조 목사의 말처럼 남북한 청년들이 만나고 교제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우기만 하면 된다. 남한의 청년들이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다보면 금세 가까워진다.

물댄동산교회에서는 남한 청년들이 탈북민 청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탈북민 청년들은 특례입학으로 대학진학이 쉬운 편이지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다. 남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보다 6배나 높다. 조요셉 목사는 탈북민 대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과 전공과목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일대일 맞춤식으로 운영된다. 새일아카데미에서는 남한 청년들과 성도들이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조요셉 목사는 탈북민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탈북민 섬기는 노하우를 전수해줬다.

“탈북민 사역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조심스러워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차이는 있지만 넘지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배워 가면 됩니다. 너무 잘 도와주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잘해주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면 됩니다. 그게 통일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문의: 새일아카데미 02-537-5545

물댄동산교회 02-593-4050

2018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사랑으로!**

마리아 4,553명의 나라와 민족, 교회와 통일을 위한 부르짖음



2018 마리아 행전에서 순백의 마리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힘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소망으로! 오직 사랑으로!”

순백의 마리아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통일을 위하여 두 손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다. 마리아들의 기도는 절절했고 뜨거웠다.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 2018 마리아행전 ‘사랑의 힘’에는 기도하는 마리아 4,553명(마리아행전 3,275명, 일터 여성을 위한 마리아행전 1,278명)이 참석했다.

27일에는 ‘믿음의 힘’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

목사, 김영애 권사(온누리교회)가 강의했다. 이목사는 “믿음은 용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권면했다. 김영애 권사는 “인생의 큰 아픔 속에서 피난처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위기를 온전히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28일에는 ‘소망의 힘’을 주제로 벤 토레이 신부(예수원), 김성근 목사(노원한나라온혜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벤 토레이 신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절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고 했고, 김성근 목사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했다.

29일에는 ‘사랑의 힘’을 주제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이지선 교수(한동대)가 강의했다. 유기성 목사는 “모든 염려, 근심은 예수님께 맡기고 사랑만 하며 사는 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지선 교수는 “삶은 선물입니다”를 주제로 “어떤 순간에서도 사랑이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자”고 말했다.

집회기간 동안 저녁에는 일터 여성들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진행됐다. 27일에는 유기성 목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를 주제로 설교했다. 유 목사는 “사랑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며 “주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28일 저녁에는 이지선 교수가 메시지를 전했다.

29일 저녁에는 이재훈 목사가 ‘사랑의 힘’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길 바란다”라고 권면했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내가 먼저 용서하는 믿음”**

“이재훈 목사님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되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았음을 회개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키우면서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힘들고, 화가 나고, 남편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믿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가정에 믿음의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 이종희 성도(수원 온누리교회)

“고통은 사랑 깨닫는 귀한 도구”

“어린 시절 받은 상처가 정말 큰 상처였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발견했습니다. 아이를 대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구보다 자존감 강하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김성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 백승목 성도(서빙고공동체)

“사랑을 다시 한 번 확인”

“이지선 교수님의 말씀 중에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신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자녀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힘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예배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서 공동체 식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미 성도(강남C공동체)

전문가 기고_명화와 함께 읽는 성경

예수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성령의 샘물로 뚫리고, 열리고, 풀리고, 해갈되다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일.하.세. 아카데미 강사)

갯난아기 몸은 80%가 물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까지 떨어진 다. 그렇다고 물이 인간의 생명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인체 주요기관에 있는 물의 비율도 흥미롭다. 뇌와 근육이 각각 75%, 콩팥과 혈액 83%, 간 85%, 허파 86%가 물이다.

물은 생명의 상징이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던 물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갈 때 호렙산 바위 아래서 다시 솟아난다. 불평하는 백성들을 가엾이 여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물이 솟게 해 주셨다. 노아의 홍수나 파라오의 병사들을 쓸어버린 홍해 물처럼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물은 축복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물 댄 동산’과 ‘월만한 물가’를 즐겨 찾고 ‘주의 자비가 봄비처럼’ 내려오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우물과 야곱의 우물

평범한 물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개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왕하 5:10).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대로 강물에서 목욕하고 나병이 나았다. 물은 정결과 거듭남의 상징이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물이 나오는 동굴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차츰 규모가 늘어나자 마을을 이루었다. 마을의 핵심 키워드는 물이다. 마을은 대개 물이 풍부한 강가나 바닷가에 있다. 동굴이나 동네를 뜻하는 동(洞)자가 물 수변(水)에 한 가지 동(同)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문명국가의 현대인들은 물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한다. 마실 물(상수)과 버릴 물(하수)을 처리하는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했던 옛날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자연적인 샘이나 인공적인 우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물의 중요성에 비례해서 우물과 샘의 중요성이 더 컸다. 또 동방에서 우물은 만남의 장소요, 풍요와 삶의 상징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만났고, 동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



카라치(왼쪽)와 구에르치노(오른쪽)가 그린 ‘예수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기 즉, 소문과 평판의 진원지가 우물가였다.

우물은 결혼중매의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그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냈다. 엘리에셀이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처음 만난 장소가 우물가였다. 야곱이 배필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다. 모세가 곤경에 처한 이드로의 딸들을 구해준 곳도 우물가였다. 모세는 그날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이드로의 딸 시므라와 결혼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선물하셨다. 대표적인 곳이 ‘아브라함의 우물’이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흙으로 매워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술책이었다.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낳은 야곱이 그의 열두 명의 아들과 함께 마셨던 곳으로 이스라엘의 뿌리를 상징한다.

“내가 메시아임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려라!”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요한 4:1~42)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다. 이 우물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다. 본문과 함께 묵상할 그림은 안니발레 카라치(1560~1609년)와 구에르치노(1591~1666년)가 그린 ‘예수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태리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인 두 화가는 역시 바로크 미술의 비조(鼻祖)인 카라바조와 동시대 인물들이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 땅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다. 예수님은 퇴락했어 내리쬘는 6시(로마시간 정오)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잠시 피곤한 몸을 의탁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다. 이때 물을 길기 위해 한 여인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단의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

이 이러한 관습을 과감하게 깨시고 말을 건네시니 사마리아의 수가(Sychar)라는 마을에서 온 여인이 깜짝 놀란다.

예수님과 여인이 나는 대화의 요지는 이렇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육체적인 목마름은 일반적인 샘물로 해소시킬 수 있다. 물론 그 해갈은 일시적이어서 갈증과 해갈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의 갈증은 보통의 샘물로 해결할 수 없다. 내 마음 속 생명의 샘 속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면 해갈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태내의 양수와 같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해엄치고 먹고 마신다.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서 솟는 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결코 마르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그림을 보면, 무지하고 비천한 신분의 수가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수가’는 ‘무언가 꼭 막힌 상태’를 의미한다. 여섯 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관계중독에 걸린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불통과 폐색 상태다. 영적인 갈증을 어찌 유한한 인간이 풀어줄 수 있으랴. 그녀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영혼의 갈증이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던 이 수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생명의 단비 같은 성령의 세례를 흠뻑 받은 것이다. 그녀의 회개는 수가라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다.

카라치의 그림을 보라. 사마리아 여인의 상반신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가려고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는 모습일까. 나는 후자라고 본다. 왜냐고? 그녀의 한쪽 발이 이미 한걸음 앞으로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님의 오른손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가리키고, 왼손은 동네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신다.

“내가 메시아임을 마을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녀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당장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놓인 물동이를 보자. 물동이를 꼭 껴안고 있거나 열심히 물을 길고 있는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 달리 카라치 그림 속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요 4:28)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물동이에 샘물을 길어오는 것은 그녀의 비즈니스이고 책무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 위해 길을 나서고 있다. 이것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마 4:20), 역시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일(마 4:22)을 연상시킨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청과 순종에 이어 복음전파를 위해 과감하게 펼쳐 일어나는 제자도 정신을 보여주고 있음을 카라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카라치의 그림이 압권이다. 같은 장면을 묘사한 구에르치노를 포함한 렘브란트, 파올로 베로네세, 칼 하인리히 블로흐, 안젤리카 코프만 등 다른 화가들의 그림과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채워 주소서’라는 복음성가는 이렇게 시작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렇다. 헛되고 헛된 것들만을 구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은 마침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요 4:24)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받으면서 영적인 것과 참된 것을 구했다. 꼭 막혀서 불통하고, 고달프고, 신산하며, 끝없이 목말랐던 그녀의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샘물로 뚫리고, 열리고, 풀리고, 해갈되었다. 그녀 앞의 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길을 나서는 여인과 그 여인을 축복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다.

온누리세계관학교 북콘서트 _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의 전략 ‘뒤틀기와 비틀기’

김진혁 교수
(햇불트리니티신학
대학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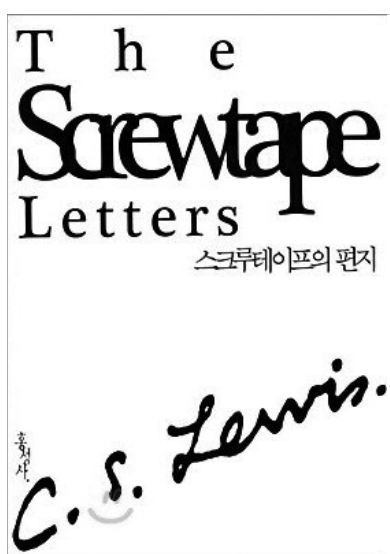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는 전쟁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C. S. 루이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주간지에 이 글을 기고했기 때문이다. 그 글들을 책으로 묶은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흥미로운 이유는 악마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경험 많고 교활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31통의 편지가 이 책의 내용이다.

우리가 보통 악마의 모습을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보자. 뿔이 달려 있고, 코가 뾰족하며, 찌진 눈을 떠올릴 것이다. 박쥐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C. S. 루이스는 악마에 대한 희극적 이미지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악마를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 등장한다.

“우리를 불신하게 되는 제일 좋은 전략 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C. S. 루이스가 생각하는 악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 S. 루이스 저 | 홍성사 | 6,500원

어떤 존재일까? 19세기는 역설적이게도 악마의 전성시대라 불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당시 문학작품에 매력적인 악마상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흔히 악의 작용 원리를 알면 진보된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악도 인류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수불가결하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도 했다. 이처럼 악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이 악마를 안 믿거나 악마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악마를 멋지게 그렸던 이전 세대 작가와 달리 C. S. 루이스는 악마의 세계는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하는 심각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았다. 악마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세계였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악마의 세계가 행정의 세계로 그려지는데, 그는 행정의 문제가 관료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일상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가 살았던 20세기 중반에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보다 욕망들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 같다.

C. S. 루이스는 악마의 행동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대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굶주림’이다.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대비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인간은 피조물일 뿐인데 피조물인 인간을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종에서 아들로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선택을 하고, 자유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악마의 법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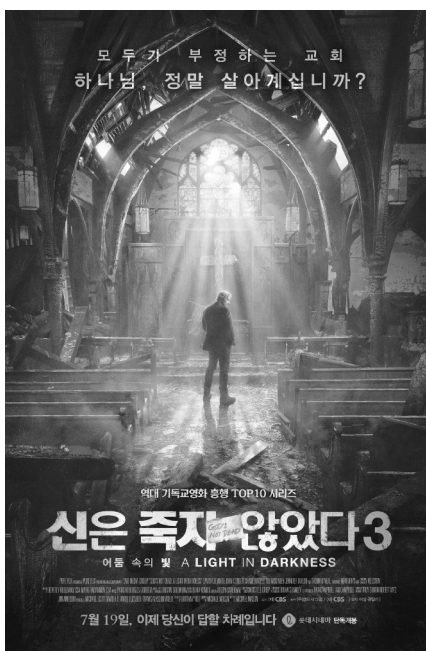
31통의 편지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악마의 전략은 뒤틀기와 비틀기다. 창조의 근

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탄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 어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있는 것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인간을 유혹한다. 그 중 하나가 인간이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감정을 비틀어서 실재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욕망을 통해서 망상을 형성하고, 관계를 왜곡시켜 버린다. 이것이 루이스가 본 악마의 은밀하지만 강력한 전략이다.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실체가 아니라 감정 자체에 집중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C. S. 루이스는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도 교리와 의견을 구분할 것을 강조한다. 교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믿고 알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고, 의견은 교리는 아니지만 교리를 각자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다. C. 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를 통해 말하는 바는 유혹심리학에 근거해서 신앙의 내용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기에, 의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C. S. 루이스는 악마에 대한 자신의 묘사를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리와 의견을 겸손하게 구분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올 여름 꼭 봐야 할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데이빗 목사는 갑작스런 화재사고로 동료 목사를 잃고 회의에 빠진다. 설상가상 교회가 주

립대학교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게 눈총을 받는다. 학교에서도 교회를 몰아내려고 하면서 데이빗 목사가 궁지에 몰린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데이빗 목사가 이렇게 질문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7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데이빗 목사가 부당한 교회 철거 명령에 맞서 싸워나가면서 믿음과 신념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에서 ‘데이빗 목사’ 역을 꾸준히 맡아온 배우 겸 제작자 데이빗 A.R. 화이트는 “고난으로 방황하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그 의미를 모색하기 위해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데이빗 목사의 고통과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슬픈 역경과 고난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신은 죽지 않았다’는 진리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메시지도 던진다. 감독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전 13장)’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메시지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유일한 진리를 다시금 각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는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2014년 개봉한 신은 죽지 않았다 1편은 평점이 10점 만점에 8.84점(네이버 평점), 2016년 개봉한 2편은 9.56점이었다. 개인의 신앙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시대가 당면한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냈다는 점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신은 죽지 않았다 세 번째 시리즈 ‘어둠 속의 빛’은 이전 시리즈의 핵심 메시지를 동일하게 담

으면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겪고 있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1편은 학생, 2편은 교사의 신앙적 고민을 다루었다면, 3편에서는 그동안 신앙 조력자로 등장했던 목사의 신앙고민을 다루었다는 점이 이전 시리즈와의 차이점이다.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예수는 역사다’ 등 기독교 영화 흥행작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제작사 ‘퓨어 플릭스’가 만들었다. 믿고 봐도 되는 영화다. 이미 북미 박스 오피스 11위까지 진입했다. 흥행성과 기독교 영화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검증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알렉스 켄드릭(‘위 룸’ 제작) 감독은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했고, 리 스트로벨(《예수는 역사다》 저자) 작가는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게 되는 영화”라고 호평했다.

문의: 02-2650-7942

故 김중원 목사 천국환송예배

워싱턴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인투비전학교 섬겨



故 김중원 목사 천국환송예배에서 교역자들이 조가(弔歌)를 부르고 있다.

일평생 청소년사역에 헌신해온 김중원 목사(워싱턴 온누리교회, 인투비전학교 설립자)가 지난 6월 10일 당뇨합병증으로 소천했다. 향년 63세.

지난 25일 故 김중원 목사 천국환송예배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렸다. 유가족, 동료 목회자, 인투비전학교 학부모와 학생, 졸업생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이 된 김 목사를 추모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망을 이긴 승리’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

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다”면서 유가족과 조문객들을 위로했다.

인투비전학교 학부모 김현숙 성도는 “김중원 목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보호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 아이가 진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김중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소영 학생은 “방향하던 시절 목사님을 만나 꿈을 찾게 되었다”며 울먹였고, 이우신 학생은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김중원 목사의 자녀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그런 아버지를 본받아 열심히 살겠다”고 인사했다.

故 김중원 목사는 치과의료선교사 출신으로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장, 차세대사역본부 등을 섬겼다. 지난 2010년 도시형 대안학교 인투비전학교를 설립했고, 2013년 워싱턴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유가족으로는 아내 하신주 선교사, 장남 김승기·정예은, 차남 김이삭·이은지, 삼남 김바울·윤은정, 장녀 김지은이 있다. 장지는 문막 온누리동산(총효공원묘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양지 온누리교회 창립 6주년 감사예배

지난달 24일 양지 온누리교회가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2012년 국내 9번째 캠퍼스로 창립됐다. 지역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도육환 담임목사는 “성도들의 뿌리 깊은 신앙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양지 온누리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꽃 피울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다.

안태환 장로는 “매해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면서 “앞으로도 서로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하나 되는 양지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립 6주년 기념 선교바자회도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올해 여름 국내외 아웃리치를 후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양지 8월 18일까지 ‘금요성령집회’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양지 온누리교회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금요성령집회’를 개최한다. 박종길 목사, 이기훈 목사, 김재석 목사, 이해영 목사, 박태영 목사, 도육환 목사가 강의한다. 사전에 신청을 하면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31-331-817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장애인예배공동체 사랑부 여름캠프 개최

서빙고, 양재, 부천 사랑부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서빙고 사랑부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 예수사랑부(양재 청년)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여성수원원, 양재 사랑부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가평 좋은아침연수원, 부천 사랑부는 7월 8일 강화도 화이트 수양관에서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빙고 누리사랑부(양재 성인)는 어제(6월 30

일)부터 내일(7월 2일)까지 캔싱턴 설악비치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하고, 강동 사랑부는 어제(6월 30일)부터 오늘(7월 1일)까지 가평 승동기도원에서 진행했다. 사랑부 캠프에서는 예배, 말씀을 주제로 한 놀이, 수영, 기도회, 자연생태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성태 팀장(부천 사랑부)은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사랑부와 부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7~8월 세미나

두란노 바이블칼리지에서 7월과 8월에도 다양한 강의를 준비했다. 기도학교 일일특강이 7월 13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김현미 강사(GIM 대표)가 12가지 성경적 기도 방법을 제시하고 실습한다. 회비는 4만 원이다. 7월 6일까지 등록 및 입금하면 3만 원이다(문의: 02-2078-3267).

성경연구학과 일일특강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미나가 8월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일일 세미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며 헛된 믿

음인지 구별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김세운 교수(폴리신학대학원)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문의: 02-2078-3266).

‘하루에 끝내는 성경 속 히브리어’ 강의도 준비되어 있다. 8월 27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문범 목사(사랑누리교회, 이스라엘성지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회비는 6만 원이다. 8월 20일까지 등록 시 4만 5천 원(문의: 02-2078-3266).

온누리색소폰앙상블 단원 모집

‘온누리색소폰앙상블’에서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색소폰앙상블은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교도소, 노숙자 밀집 지역 등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색소폰 연습 및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서 색소폰 연주 경력이 1년 이상 된 성도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문의: 010-5289-0973

봉사자와 헌물 구합니다.

평택M센터와 인천 몽골어예배에서 여름 연합수련회를 앞두고 승합차 운전 봉사자와 다인용 텐트, 부식 등 헌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평택M센터와 인천 몽골어예배의 여름 연합수련회는 올해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망상해수욕장에서 열린다. 문의: 010-6343-7588

‘Summer IT Festa’ 개강

7월 31일까지 매주 화 19시 30분

IT기술을 선교도구로 활용하는 ‘온누리 Logon사역팀’에서 주최하는 ‘Summer IT Festa’가 7월 3일 개강한다. 7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옐로이벤 빌딩 지하 2층(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길 43)에서 진행된다.

최성석 목사의 ‘예배의 개척자 다윗’, 이수호 사장(SK텔레콤)의 ‘ICT(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한 용어) 기술진화와 선교’, 박대수 전무(KT CR부문장)의 ‘KT 5G 서비스와 ICT 기술로 인한 분야별 변화’, 김경훈 전무(구글코리아)의 ‘IT

종사자들의 고민 상담 토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7월 31일에는 CCM 사역자 김만희(그룹 축복의 사람)의 ‘한여름 밤의 가로수 콘서트’가 열린다.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경희 사역자(온누리 Logon)는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서 IT를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651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성경적 결혼을 디자인 하라’

S브릿지공동체가 7월 특별예배를 오는 8일부터 드린다. 7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예배주제는 ‘성경적 결혼을

디자인 하라’다. 이번 특별예배에서는 강미향 목사의 ‘가정학개론’, 이기복 목사의 ‘자아정체성발견’, ‘사랑학개론’, ‘결혼학개론’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 아랍어예배 스태프 간증



/ 강진일 성도(서빙고 아랍어예배)

아랍어예배에 오면

10여 년 전 아랍어예배에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 나는 아랍에 관심도 없었고, 아랍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아랍어예배를 찾아간 이유가 있었다. 두바이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두바이에 가기 전에 아랍어를 조금이라도 익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랍어예배에는 아랍사람이 많을 것이고, 아랍어가 자연스레 내 귀에 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좁디좁은 지하에서 아랍사람은 전도사님을 포함해 단 2명뿐이었다. 한국인까지 합치면 10명이 안 되는 예배자들이 웅기종기 모여 예배 드리고 있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온누리교회 분위기와 너무 달라서 충격에 빠졌다.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속으로 “여기 진짜 온누리교회 맞아?”라고 수없이 생각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수는 없어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자매님을 예배팀으로 인도하셨다”면서 나를 붙잡았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며 환영해 주셨다. 그때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 아랍어예배를 섬기고 있다.

얼떨결에 머물게 된 아랍어예배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선교에 전혀 관심 없고, 선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던 내가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아랍어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나의 왜곡된 생각을 고쳐주셨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주셨다.

아랍어예배는 내가 처음 왔을 때처럼 여전히 작다. 거대한 온누리교회 안에 이렇게 작은 예배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다. 그러나 아랍어예배의 영적 크기는 크다. 어느 예배팀 못지않게 큰 소망을 가지고 거대한 대륙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아랍어예배는 선교지 교회 모습 그대로다. 한국에서 선교지 교회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아랍어예배에 참석하기를 권한다. 이곳에 오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아랍어예배에 오면 당신만을 위한 선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 강동 예배학교 수료 간증



/ 구은지 자매(강동 온누리교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는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오른쪽 손에 마비가 왔었다.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피아노로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피아노를 치면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재활치료를 위해 시작한 피아노 연주가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20대 초반까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겼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갈증이 계속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하는 The One 캠프에 참석하게 됐다. 온누리교회 예배는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졌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예배였다. 온누리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온누리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다. 그리고 강동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나는 지금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기고 있다. 찬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은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다시 갖게 됐다. 때마침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예배학교가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했다.

4주 동안 진행되는 예배학교는 은혜 그 자체였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강의와 조별 나눔을 통해서 깨달았다. 예배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는 예배학교를 통해서 예배자로 서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대중을 의식할 때가 있다. 또 음악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면 예배보다 음악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도 있다. 나는 그때마다 예배를 섬기면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예배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예배를 통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고, 공격들도 많다. 그때마다 예배팀원들이 땀땀 땀땀 서로를 잘 잡아준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한다. 많은 회중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 관계기술학교 수료 간증



/ 김재희 성도(서초B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몇 달 전 순예배에서 한 자매를 통해서 관계기술학교를 알게 됐다. 그 자매도 나처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남 앞에 나서서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다. 그 자매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서 다양한 회복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했다.

하지만 효과가 그때뿐이었지 또 다시 관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이기원 목사님의 관계기술훈련을 듣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당시 나는 자녀와의 관계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자매의 말을 듣고 관계기술훈련을 받기로 결정했다.

관계기술학교 첫 시간에 강사의 지시대로 파트너와 눈을 바라보며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러웠다. 3분이 지나고 그때 들었던 감정을 나뉘보라고 했다. 내 감정을 포착하고 알아차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관계기술학교에서 훈련받는 동안 내가 사

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미숙했는지를 알게 됐다. 어린 시절에 충족되어야 할 것들이 결핍되어서 생긴 문제였다. 충족되지 못한 감정들로 인해서 딸에게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여주지 못했고, 부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다. 딸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나는 부모이지만 성숙단계에서 보면 아동기에 머물러 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이해시키는 기술이 많이 부족하다. 나는 유난히 수줍어하고 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만남도 허락하셨다. 지체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다. 8주 동안 이어진 관계기술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직도 인간관계를 맺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

■ 새사람사역팀 간증



/ 공민음(소망교도소 재소자, 가명)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친구 따라 교회에 몇 번 간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 방법과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셨다. 하지만 나는 한사코 거부하고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내 감정과 생각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러다 한순간의 실수로 감옥에 들어오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은혜를 부어주셨다.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을 보내주셨다. 새사람사역팀과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됐다. 나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언제나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이 생겼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QT를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QT는 올해 3월 16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을 암송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3:16).

암송하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성경도 잘 모르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소망교도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기쁨, 감사, 자유, 소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은 매주 일대일 제자양육교육을 위해 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계신다.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새사람사역팀 봉사자 모집

문의: 백종신 팀장 010-3625-0266

장로칼럼

내시경 검사와 해석



박영태 장로
(양천공동체, 고대
구로병원 소화기내
과 교수)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부분은 완전히 따로 분리시킬 수 없으며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육체가 지나치게 피곤하면 정신적 사고력이 나 영적 민감성도 무뎌질 수밖에 없다. 또 몸만 튼튼하다고 건강하다 말할 수 없다. 정신적 건강과 영적 건강, 사회적 건강까지 제대로 갖춰야 진정한 건강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시간을 주시고 이를 잘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주셨다. 육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청지기 직분도 주셨음이 분명하다. 육체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않는 것과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학적인 지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듣거나 통보를 받고도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지나친 염려를 하거나 중요한 소견을 놓칠 수 있다. 건강검진에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 다음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간단히 설명한다.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남자들의 발병 순위는 1위와 3위, 여자들은 4위와 3위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위암과 대장암이 진행된 이후 진단될 경우 예후가 좋지 않지만, 점막에 국한된 초기에 진단되면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소 등 동네에서 접할 수 있는 소규모 의원)에서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비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 내시경 검사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40세 이상이 되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하고,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대변잠혈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 덕분에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치료 성적은 아주 좋은 편이다.

간혹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두려워 위장조영술이나 대장조영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검사들은 초기에 암이나 암의 전 단계 병변을 진단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진정내시경 검사는 흔히 ‘수면내시경 검사’로 알려져 있으나 수면 상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다. 예상 검사시간에 따라 진정효과 지속 시간이 짧은 진정제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작용시간이 긴 약을 사용할 때도 있다. 진정내시경 검사는 호흡기나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검사 도중 혈중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면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검사 후에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 검사 당일에는 운전이나 중요한 업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위암이나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가 필수다. 위내시경 검사는 1~2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5~10년마다 시행한다면 암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완치가 가능한 시기에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의사의 의견을 듣고 추천하는 계획을 잘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위암과 대장암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물질의 청지기 직분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청지기로서도 성공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은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권사칼럼

여행에서 만난 하나님



장갑생 권사
(강촌공동체)

지난달 강촌공동체 권사님들과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여행을 다녀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지를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여행의 첫 발을 내디뎠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에 도착했을 때 약전후가 이어져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원한다”고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류블랴나에서 슬로베니아의 휴양지 블레드로 이동하자 맑은 날씨를 허락하셨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과 흰 구름까지 정말 완벽한 날씨였다.

블레드성과 티토 대통령의 여름 별장, 슬라브 민족의 성지인 블레드섬의 푸른 호수를 봤다. 세계적인 석회암 동굴인 포스토이나 동굴도 탐사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경관은 참으로 경이로웠다.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종유석, 석순, 석주들이 모여 있었다. 붉은색, 흰색, 노란색 등 다채로운 색깔을 띤 다양한 광물들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포스토이나 동굴은 마치 다양한 장식으로 꾸며진 화려한 지하궁전 같았다.

항구도시 피란을 거쳐서 버스를 타고 크로아티아에 도착했다. 이탈리아 반도 건너편에 있는 크로아티아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오랜 역사와 새로운 역사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면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크로아티아에서의 첫 행선지는 이스트리아 반도의 고대 중심 도시 모토분이었다. 모토분에는 산꼭대기에 지어진 성이 있다. 이 성은 과거 이슬람의 공격으로부터 기독교를 끝까지 지킨 것을 기념해서 지어졌다고 한다. 성 주변 좁은 골목은 반질반질했고, 성채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었다. ‘쁠라’라는 도시에 가서 로마제국이 남긴 원형경기장도 둘러봤다. 이 원형경기장은 로마 황제가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한 여인을 사랑한 로마 황제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들을 선물해 주신다. 아름다운 광장과 세인트도나투 성당이 있는 자다르에도 갔다. 현대 설치예술가 니콜라 바시츠가 만들어 놓은 오르간이 바다 속에 잠겨 있었다. 이 ‘바다의 오르간’은 신비한 노래를 연주한다. 얼핏 들으면 고래의 구애소리 같기도 하고, 슬픈 사연을 듣는 것 같기도 하다. 마음이 조금은 울적했다.

버스 안에서 지체들과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을 나눴다. 똑같은 걸 봐도 느낌이 제각각이었다. 하나님은 너무 다른 우리를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웃음소리만 가득했다. 플리트비체 폭포도 기억에 남는다. 폭포 사이에 있는 에메랄드빛 호수가 너무 아름다웠다. 일상에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이 더해졌다. 그 밖에도 많은 곳을 방문한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의미있었던 것은 현지인 가이드 이바나와의 소중한 만남이었다. 우리의 여행을 안내해준 그녀는 크로아티아에서 몇 안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매였다. 여행 중에 신앙에 대해서 깊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여행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한다.

독일 통일에서 배우는 교회의 역할



베르너 크레첼 목사
(전 PanKow교회 담임)

독일이 통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이후 통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위한 날짜가 결정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브란덴부르크 문과 의회 건물을 배경으로 베를린의 중심에서 열린 축하의식에는 동독과 서독의 정치가들이 함께 단상 위에 올랐다. 28년 동안 감옥 같은 생활을 했던 동독 사람들에게 환희가 가득했다. 베를린의 많은 교회에서도 감사예배를 드렸다. 서독 수상 폴과 동독의 수상 마지에르는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통일 이후 독일 교회의 역할은 분명했다. 독일 교회는 쓸쓸한 동독 사람들의 정신적, 예술적, 영적 삶을 돌보는데 필요한 피난처가 되었다. 이를 위한 장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류가 없는 가정에서도 존재했다. 당시 목사관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했고, 그곳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앙겔라 메르켈처럼 잠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교회는 늘 약자들과 함께했다. 동독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명예직을 수여하거나 영적 공급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도록 도왔다. 독일의 모든 교회들은 나눔의 미덕을 강조하며 통일 전에도 그랬듯이 동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독의 부를 나눠주는 삶을 실천하도록 독려했다.

그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한다

교회의 또 다른 임무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자연보호를 위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독일 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난민들을 위한 수많은 자원프로그램과 환영문화를 만들었다. 난민의 정착과 교육, 주거환경, 일자리, 언어교육, 심리상담 등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도전은 지금도 독일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형성된 서독과 동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동독과 서독의 교회에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설득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이 공산주의 아래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압제적인 상황에서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서독의 교회에도 유익할 수 있었다. 많은 서독 사람들이 통일 전과 후에 동독 사람들에게 “통일된 독일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물어보지 않았다. 많은 영역에서 서독의 표준과 규칙을 동독에게 전달했을 뿐이었다.

내가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한 자가 더 많은 말을 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한국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베를린 화해의 채플에서 열린다. 나는 이 기도회가 서울과 베를린 사이에 형성된 좋은 유대감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하게 여름나기 위한 ‘안전관리요령’

안전관리분과위원회, 꼼꼼한 사전 점검 및 숙지 강조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성도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안전관리요령’을 발표했다. 골자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한 시설물 안전관리요령, 국내외 아웃리치 안전관리요령이다.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가 가장 강조한 여름철 안전관리요령은 꼼꼼한 사전 점검이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건축물, 전기, 가스 시설 등의 안전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고, 아웃리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과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전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문의: 02-3215-321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여름철 시설물 안전관리요령

▷ 전기설비 점검요령

- 1)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 노출 여부
- 2) 전기기기 감전 방지를 위해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접지) 여부
- 3)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 여부
- 4)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접촉하는 행위 금지
- 5) 수동 개폐기의 퓨즈로 동선(銅線)이나 철사 사용 여부
- 6) 자동개폐기(차단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 7) 전력 사용량 급증에 따른 변압기 과부하 여부
- 8) 냉방기 과부하 및 스크린 먼지에 의한 인화(引火) 여부

▷ 가스 시설 점검요령

- 1)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의 조여짐 여부
- 2) 노후 호스나 배관의 파손 우려 여부
- 3) 장마철 대기 순환 부족으로 누출된 LP가스의 경우 낮은 곳에 체류 여부(LP가스 누출 감지기는 하부에, LNG 누출감지기는 상부에 설치하여야 함)
- 4) 침수가 예상될 경우 중간밸브뿐만 아니라 계량기 옆 메인밸브까지 잠글 것
- 5) 침수로 대피할 경우 LP가스 용기에 부착된 밸브를 잠그고, 체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대피

▷ 건축물 점검요령

- 1) 교회와 주택(공동주택 단지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함) 옥상 배수구 청소 여부
- 2) 교회와 주택 주변 배수로 청소 여부
- 3) 주변 축대와 담장의 기울임 여부
- 4)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통행로에 물고임과 미끄러움 여부
- 5) 돌출물(간판, 종탑, 현수막 등)의 비산(飛散)과 전도(顛倒) 여부
- 6) 지하층 침수 우려 여부
- 7) 배수로와 정화조의 역류 우려 여부

■ 아웃리치 중 사고가 났을 때

- 1) 아웃리치 중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 아웃리치를 주관하는 팀장이 현장책임자가 된다.
- 2) 현장책임자는 외부인들의 오해나 추측으로

부정확한 사고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팀원들의 언동을 조심시킨다.

- 3) 국외 아웃리치의 경우 현장책임자는 2000 선교본부에 보고하고, 사안의 경중을 분별해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영사관에도 보고한다.
- 4) 사고담당교역자는 신속하게 현장책임자와 통화해 행사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귀가 또는 귀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 5) 그 밖에 아웃리치의 안전점검 및 사건사고 시 상세 처리요령은 안전관리분과위원회의 해당 지침(지침서 <온누리교회 안전관리규정> 참고, 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을 참조한다.

■ 안전관리 요령

▷ 국내행사(국내 아웃리치, 수련회 등)가. 숙소 및 행사장 점검사항

- 1) 정식 허가를 받은 장소 여부
- 2) 숙소 현황확인: 남녀구분 및 아동 등을 고려한 장소 여부
- 3)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
- 4)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범람 및 산사태로 인한 위험요소
- 5) 전기,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여부
- 6) 행사지원시설(조명, 음향, 무대 등) 안전 여부
- 7) 야생동물 출몰 여부
- 8)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의 접근성
- 9) 현지 연관 교회 혹은 관리자와의 협력 여부

나. 이동수단 점검사항

- 1) 임차 버스의 차령 5년 이하 여부 및 운전자 적정성
- 2) 임차 차량의 적정보험 가입 여부

다. 기타 점검사항

- 1) 물놀이 안전수칙, 가스안전수칙, 여름 폭염에 따른 일사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 2) 식중독 예방, 유해 및 위험 동물(말벌, 뱀, 산돼지 등)에 대한 대비방법 사전교육 여부

▷ 해외행사(해외 아웃리치)가. 현지 협력기관에 대한 점검

- 1) 현지 협력기관의 정체성 확인(선교단체 혹은 NGO 등)
- 2) 현지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망 확보 및 운영역량
- 3)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능력

나. 아웃리치 팀 구성 및 사전교육에 대한 점검

- 1) 아웃리치의 목적 및 특성,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
 - 2) 위기대응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숙지
 - 3) 현지 기후 등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
 - 4) 아웃리치 팀의 리더그룹의 분야별 적절한 조직구성 및 교육 훈련
 - 5) 개인 건강에 대한 사전 확인
- ### 다. 아웃리치 팀의 안전관리체계 점검
- 1) 아웃리치 팀의 자체 안전관리 조직 구성(팀 리더 및 안전관리자 선임)
 - 2)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소그룹 리더 및 팀 편성(조당 3~4명)
 - 3) 팀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대응방법 숙지
 - 4) 아웃리치 기간 중 리더십 및 안전관리자의

- 지시에 순종 교육
- 5)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위기 조치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교육
- 6) 현지 협력기관의 행동지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

라. 출국 전 준비사항 점검

- 1) 건강진단, 예방접종 시행 및 개인별 복용의약품 준비
- 2) 개인별 신상에 대한 자료 확보(비상연락망, 혈액형, 여권사본 등)
- 3) 여행자보험 일괄 가입
- 4) 서약서, 각서 등 필수적인 서류 작성
- 5) 현지의 여행 안전정보 확인

국내 아웃리치 및 수련회 안전점검 항목

분류	점검항목	예	아니오
건물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까?		
	객실배치도, 출입구, 대피로 등은 확인하십니까?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수지, 웅덩이, 계곡, 절벽, 인접도로 등)		
	시설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류확인 및 서류 첨부-사본)		
	안전사고 발생 시 수련원 자체의 조치계획(보건실 운영계획 등)은 있습니까?		
내부 시설	참가자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원활하게 배치 가능합니까?		
	설치물들(가구, 유리창문, 방충망,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은 안전합니까?		
위생	방, 복도, 화장실, 층계, 외부에 조명은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야간 이동시 위험할 경우)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깨끗합니까?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합니까?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입니까?		
식당	방, 복도, 강당, 건물 주변 등의 위생상태는 정결합니까? (곰팡이, 거미줄, 먼지 등)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의 질이 참가자들의 선호에 적합합니까?		
	조리실의 청결상태가 양호합니까?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및 물놀이 안전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혹은 일반음식점 허가증을 확인하십니까?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십니까?		
	활동장소(바다, 산, 강, 냇물, 수영장 등)의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십니까? (수영금지구역, 물의 깊이, 조류속도, 파도높이, 물 때)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장비(구명동의, 구명튜브 등) 비치 여부를 확인하십니까?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응급구조체계(인근의료시설 파악 등)는 확인하였습니까?		
	물놀이 사용장비의 점검상황과 내구연한 등 기본적인 안정상태 점검내역서를 확인하십니까?		
	야외 프로그램 진행시 화재위험(캠프파이어, 불꽃놀이)이 있는 장소는 아닙니까?		

해외 아웃리치 체크항목

점검항목	예	아니오
해외여행 안전국가인지 확인하십니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십니까?		
팀 자체적인 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구성하십니까?		
현지 기후를 확인하십니까?		
참가자들의 건강을 체크하십니까?		
구급약품은 구비하십니까?		
해당국가 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은 하였습니다습니까?		
개인신상 파일은 작성하십니까?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현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두란노 어머니학교알콩달콩부부학교

본부 4기 지원자 모집

일시: 7월 6일~7일(1박2일, 금요일 오후

7시~토요일 오후7시)

장소: 포천 더생명나무집

강사: 김성목, 한은경, 박상훈, 조용호,

강미향

회비: 20만원(우리는행 1005-381-711

002)

접수: 전화 02-2182-9114

www.mother.or.kr

온누리꽃집 직원 모집

자격: 세례교인,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접수: flower@onnuri.org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문의: 박정자 권사(010-7281-3691)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급식교사

채용

분야: 급식교사(조리사)

자격: 조리사자격증 소유자 우대

서류: 이력서(추후 등본 건강진단서)

지원: onnurim911@gmail.net

문의: 031-491-9601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KNOCK 미니휴먼다큐

수원역 브이로그

VL'OG

매주 금요일 밤, 아르바이트로 준비한 선물을 들고 수원역으로 향하는 한 커플,
노숙인 삼촌과 이모를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

“ 금요일마다 수원역으로 소풍가고,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랑을 들고서 ”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